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질병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월 덴마크산 가금육의 검역중단 해제 이후 날개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5월 가금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덴마크와는 당분간 교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5월에 부산항에 들어오는 가금육 또한 문제가 발생되어 반송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의 수급균형은 크게 변화될 것 같다.

6월 달의 경우 날개의 수급균형이 어긋나 날개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냉동육을 유일하게 수입할 수 있는 미국이 존재하고 있으나, 품질과 사이즈로 인해서 한국시장에서는 인기가 없는 듯하다. 또한 미국의 공장들이 AI가 발생했을 경우 반송과 환불(Refunding)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5월에 많은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큰 우려를 낳게 한다. 유럽의 경우 한 달 동안 루마니아, 영국, 덴마크에서 조류인플루엔자와 인체 감염의심환자가 발생했

으며, 중국에서는 매월 끊임없이 발병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일가족 중 다수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가금류에 의해 사망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사람 대 사람 감염여부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비교적 정직하게 질병여부를 발표하는 덴마크의 경우 AI에 감염된 야생조류가 40건 정도 발생했다고 한다. 인구 500만 명의 국가에서 이 정도 발생했다면, 철새이동로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미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연하게 진실을 외면하는 것 같다.

유럽의 경우 북유럽을 걸쳐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야생조류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덴마크와 루마니아는 물론, 월드컵이 개최되는 독일 및 인접국가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

미국

5월 달에 약 20% 정도 오퍼가격이 상승했다.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750~800불 정도이며, 날개(Wings)의 경우 2,200~2,400불까지 형성되었다. 6월 도착분 가격은 다소 올라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880불, 넓적다리(Bone In Thigh)의 경우 900불 정도로 보여진다.

지나친 기우일 수도 있겠으나, 6월부터 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상륙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의 교역은 AI와 관련하여 환불(Refunding)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브라질

정육(Bone Less Leg Meat)의 경우 1,600불, 날개(Wings)의 경우 2,500불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5월에 부산항에 도착한 컨테이너의 경우 승인공장이 불일치됨에 따라 반송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하반기 오피가격을 보면 정육가격이 최저가를 형성하고 있어 3/4분기 시장도 침체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덴마크

5월에 가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당분간 냉동육 교역이 중단될 것 같고, 덴마크 또한 고품질 가공품의 교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산 가공품과 비교해서 품질과 맛이 우수해 전략적으로 한국시장에 접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가공품 시장이 정착되어 매월 1,000톤 정도씩 한국에 수입되고 있다. 가공품 종류도 늘어나, 닭꼬치 중심으로 교역되었던 것에서 오리 가공품, 훈제 닭고기 등 다양한 품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닭꼬치 시장의 대부분이 냉동꼬치 시장에서 가공꼬치 시장으로 전환된 듯하다.

결론

6월 월드컵이 개최가 되면, '복날'과 더불어 닭고기 특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완연하다.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큰 혜택을 맞본지라 이번에도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 같다. 한국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서울광장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응원할 것이고, 시원한 맥주와 치킨은 저녁대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독일에서 태극전사들이 잘 싸워 16강은 물론 8강까지 간다면 특수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한다.

최근 한 달 동안 덴마크에서는 약 40여건의 AI가 발생되었다. 그 중 가금류에서 발생한 AI의 경우 독일에서 불과 몇 십 킬로 떨어진 곳이다. 야생조류의 이동경로를 보면 독일과 폴란드, 프랑스는 배제할 수가 없는 듯하다.

부디 마스크에서는 월드컵만을 방송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한국은행 총재의 AI관련 발언이나, 5월 말에 있는 AI 국제회의 비중이 여론을 형성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